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글로벌 전략 Note

2022. 08. 09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대응전략

-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가 코 앞, 관련 업종을 선별할 때
- IRA 법안 수혜 업종은 헬스케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 주목 가능 ETF는 IHF(헬스케어), DRIV(전기차), ICLN(친환경)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는 IRA 법안

새로운 BBB(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법안인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가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12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IRA 법안의 주요 내용

IRA 법안은 향후 10년 간 약 7,400억달러의 세수를 유입해 헬스케어와 에너지 정책 등에 4,330억달러를 활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에 약 3,000억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정책은 크게 3가지(①헬스케어, ②에너지 안보/기후, ③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다.

IRA 법안 통과의 시사점

IRA 해당 법안 공개 이후 바이든의 지지율은 37.5%(7월)에서 45.0%(8월초)까지 높아졌다. 8월 휴회 이후 본격화될 11월 중간선거 준비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발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 업종 선별이 필요한 시기다.

IRA 법안 수혜 산업 ① 헬스케어

헬스케어 정책 수혜는 1) 의료 보험사, 2) 의료 시설 기업, 3) 의료 장비업체 순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 보험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의료 시설 접근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 업체들은 리베이트 지불 여부와 주요 제품군에 따라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ETF는 XLV, IBB, IHI 등이 있으나 가장 우선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ETF로는 IHF를 제시한다.

IRA 법안 수혜 산업 ② 전기차/친환경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정책 수혜 업종은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등이다. 전기차 관련 ETF로는 DRIV, LIT 등이 있고, 2차전지/배터리 관련 ETF로는 LIT와 BATT이 있다. 해당 ETF 중에서는 DRIV와 BATT를 주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다. 관련 ETF로는 ICLN, QCLN, TAN 등이 있으며, 해당 ETF 중에서는 ICLN과 TAN을 선호한다.

최보원
bochoi@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RA 법안 세부 정책 및 관련 업종 점검

최종 통과를 코앞에 둔 IRA 법안, 수혜 업종 점검이 필요

새로운 BBB(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법안인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가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무난한 하원 표결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정책과 관련 업종/ETF를 점검했다.

IRA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7,400억 달러의 세수를 유입해 헬스케어와 에너지 정책 등에 4,330억 달러를 활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에 3,0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정책은 크게 3가지(①헬스케어, ②에너지 안보/기후, ③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다.

<표 1> IRA 법안 주요 정책 점검

정책 구분	세부내용
1. 헬스케어 정책	1) 오바마케어(ACA 법안) 지원 연장 - 640 억 달러 투입 예정 2)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 부담금 완화 -연간 상한을 2,000 달러로 설정
2. 에너지 안보/기후 정책	- 신규/중고 전기자동차 세금 리베이트 제공 - 신규 7,500달러(연 과세소득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달러 이하) - 중고 4,000달러(연 과세소득 개인 7.5만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
3. 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	-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약 150개) 대상으로 15%의 최저 법인세율 부과 계획 - 약 3,130억달러 추가 세수 유입 가능 예상 - 펀드매니저, 부동산 투자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140억달러 감세 혜택은 유지 -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해 1%의 세금 부과 계획 - 1,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유입 기대

자료: Whitehouse, NACo(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한국투자증권

<표 2> 주요 정책 및 관련 ETF 점검

구분	ETF
헬스케어 관련 ETF	
대표 헬스케어	XLV, VHT, IYH
바이오테크	IBB, XBI
의료장비	IHI
글로벌 헬스케어	IXJ
의료보험/서비스	IHF
선호도/정책 수혜 반영 강도: IHF> XLV> IHI > IBB> IXJ	
전기차 관련 ETF	
전기차	DRIV, KARS, IDRV
베터리	LIT, BATT
선호 ETF: DRIV, BATT	
친환경 관련 ETF	
신재생에너지	ICLN, QCLN, ACES, PBW
태양광	TAN, SOLR, RAYS
풍력	FAN
선호 ETF: ICLN, TAN	

자료: 한국투자증권

1. 헬스케어 정책

세부 헬스케어 정책 점검

가장 먼저 발표된 내용은 헬스케어 정책이다. IRA 법안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① 오바마케어(ACA 법안) 지원을 2023년 1월부터 3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640억달러를 투입해 1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② 6,500만명의 노년층과 몸이 불편한 사람이 대상인 메디케어 처방약 값 부담이 낮아질 계획이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본인부담금 상한을 연간 2,000달러로 설정해 86만명의 이용자가 1년에 약 900달러의 의료비 절감을 받게 될 전망이다. ③ 2026년부터는 10종, 향후에는 20종에 대한 처방약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종 및 수혜 반영 순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는 경우 수혜는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1) 의료 보험사, 2) 의료 시설 기업, 3) 의료 장비업체 순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 보험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의료 시설 접근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 업체들은 리베이트 지불 여부와 주요 제품군에 따라 실적 영향은 상이할 전망이다.

관련 ETF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ETF로는 IHF를 제시한다. 대표적인 헬스케어 ETF로는 XLV, VHT, IBB 등이 있으나, IHF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표 3> 헬스케어 정책 관련 ETF

(단위: 백만달러,%)

구분	티커	ETF 명	AUM	일평균 거래대금	총 보수율	분배금 수익률	상위 10 개 기업 비중	수익률		
								1M	3M	6M
헬스케어 관련 ETF										
대표 헬스케어	XLV	헬스케어셀렉트섹터 SPDR 펀드	39,635.9	1,275.5	0.1	1.5	54.4	0.8	1.5	(1.0)
	VHT	뱅가드 헬스 케어 ETF	16,666.5	76.0	0.1	1.3	49.3	1.6	3.6	(1.0)
	IYH	아이셰어즈 U.S. 헬스케어 ETF	3,096.5	15.3	0.4	1.1	52.8	0.8	2.5	(1.0)
바이오테크	IBB	아이셰어즈 바이오테크놀로지 ETF	8,565.6	276.1	0.5	0.2	48.6	4.2	16.7	0.4
	XBI	SPDR S&P 바이오테크 ETF	8,737.3	1,054.7	0.4	-	15.3	11.2	33.9	1.0
의료장비	IHI	아이셰어즈 U.S. 메디컬 디바이시스 ETF	6,885.3	61.4	0.4	1.4	71.6	5.0	0.9	(9.9)
글로벌 헬스케어	IXJ	아이셰어즈 글로벌헬스케어 ETF	3,735.4	13.0	0.4	1.2	40.8	0.3	0.2	(2.1)
의료보험/서비스	IHF	아이셰어즈 U.S.헬스케어프로바이더스 ETF	1,492.4	15.7	0.4	0.6	73.3	5.4	5.1	1.0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2. 에너지 안보/기후 정책

세부 지원 계획 점검

둘째는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정책이다. 해당 정책에는 3,700억달러가 할당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으로는 풍력, 태양열,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세금 공제가 포함되어 있다. 신규/중고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각각 7,500달러와 4,000달러의 세금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 업종 및 관련 ETF
1)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수혜 업종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등을 1차적으로 주목 가능하다. 전기차 관련 ETF로는 DRIV, LIT 등이 있고, 2차전지/배터리 관련 ETF로는 LIT와 BATT가 있다. 해당 ETF 중에서는 DRIV와 BATT를 주목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 수혜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갈등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ETF이기 때문이다.

DRIV는 미국 비중이 가장 높고, 전기차 업체 뿐 아니라 미국 대표 업체들도 상위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 전기차 관련 ETF 중 AUM도 가장 크다. 2차전지/배터리 관련 ETF 중에서는 AUM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국 비중이 가장 높아 정책 수혜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BATT를 제시한다.

수혜 업종 및 관련 ETF
2) 신재생 에너지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할 수 있다. 관련 ETF로는 ICLN, QCLN, TAN, FAN 등이 있으며, 해당 ETF 중에서는 ICLN과 TAN을 선호한다. 친환경 업체들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큰 ETF인 ICLN을 추천한다. 특히 태양광 관련 ETF 중에서는 미국 비중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TAN이 상대적으로 정책 수혜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표 4> 전기차 관련 ETF

(단위: 백만달러,%)

구분	티커	ETF 명	AUM	일평균 거래대금	총 보수율	분배금 수익률	상위 10 개 기업 비중	수익률 1M	수익률 3M	수익률 6M
전기차 관련 ETF										
전기차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1,017.2	4.3	0.7	0.6	26.9	11.8	3.4	(12.3)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475.3	2.7	0.5	2	40.3	8.2	0.3	(17.2)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266.0	1.8	0.7	8.3	39.2	3.6	12.1	(7.4)
배터리	LIT	글로벌 X 리튬 & 배터리 테크 ETF	4,677.8	46.8	0.8	0.3	58.2	2.9	15.0	0.0
	BATT	Amplify Etf Trust –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197.0	1.3	0.6	2.7	40.2	4.1	8.3	(6.9)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5> 신재생 관련 ETF

(단위: 백만달러,%)

구분	티커	ETF 명	AUM	일평균 거래대금	총 보수율	분배금 수익률	상위 10 개 기업 비중	수익률 1M	수익률 3M	수익률 6M
신재생 관련 ETF										
신재생	ICLN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5,652.0	99.6	0.4	0.7	51.7	12.6	21.2	23.2
	QCLN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에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펀드	2,283.0	14.7	0.6	0.0	58.2	15.7	20.2	11.4
	ACES	ALPS Clean Energy ETF	785.9	6.8	0.6	0.7	52.5	21.2	23.9	21.9
	PBW	인베스코 월더힐 클린 에너지 ETF	4.0	28.9	0.7	2.3	16.9	21.1	16.0	7.6
태양광	TAN	Invesco Solar ETF	2,973.9	103.3	0.7	–	56.5	11.3	31.8	33.8
	SO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5.3	0.0	0.8	2.9	38.9	12.2	10.0	3.5
	RAYS	Global X Solar ETF	8.4	0.8	0.5	0.0	63.3	5.4	36.7	23.4
풍력	FAN	퍼스트 트러스트 글로벌 윈드 에너지 ETF	300.7	2.0	0.6	1.8	50.6	5.6	5.8	1.9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3. 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

세부 정책 내용 점검

다음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가장 상반되는 세금 인상안이다. 민주당은 일부 대기업(연매출 10억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3,130억달러의 추가 세수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법인세 부과로 기업 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는 침체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펀드매니저/부동산 투자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세 혜택은 유지됐지만, 대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한 1%의 세금 부과 계획이 발표됐다. 해당 정책을 통화 1,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유입이 기대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IRA 다음은 CHIPS

8월 휴회 이후 본격화될 정책 논의, 다음은 CHIPS

IRA 법안의 주요 정책은 위의 3가지이나, 8월 휴회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는 주 내용은 각 당의 정책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에 대한 공방이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CHIPS(반도체법) 법안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함께 CHIPS 법안은 SK, 인텔, 삼성, TI 등의 기업 투자 가능성이 명시(백악관)되어 있다. CHIPS 법안은 기업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IRA 법안 다음에 부각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한다. CHIPS 법안까지 통과 시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관련 ETF로는 반도체 ETF인 SOXX와 SMH, 대표 IT ETF인 XLK 등이 있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